

한국 전후소설의 성담론 방식 연구*

- 근대적 주체의 젠더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

김 은 정**

목 차

I. 서론	IV. 여성 작가에 의한 성담론 방식
II. 근대적 주체와 성담론의 관계 고찰	1. 성매매 여성을 통한 성담론
III. 남성 작가에 의한 성담론 방식	2. 여성의 '성욕'을 통한 성담론
1. 성매매 여성을 통한 성담론	V. 결론
2. 여성의 '성욕'을 통한 성담론	

[초록]

본고는 전후 소설에 나타난 성담론을 고찰한 것으로서 남성작가와 여성작가의 작품 별로 각각 형상화된 여성 인물의 '성'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성담론을 통해 전후시기 여성인물에 대한 젠더이데올로기가 작동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본고가 유형화한 성담론 방식의 주요 대상 여성은 성매매 여성과 자의적으로 성욕을 표출하는 여성으로 분류되며, 본고는 이들 여성을 다루는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의 태도 등에서 젠더이데올로기의 위계화와 이중화를 고찰하였다. 특히 남성 작가에 의해 '구원의 여성' 이미지로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조차 이 인물이 성매매 여성일 때 근대적 남성 주체에 의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 작가에 의해 주체적 인물로 평가받는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작품의 결말은 부정적으로 끝나는 점을 통해 근대적 주체의 젠더이데올로기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성담론, 젠더이데올로기, 근대적 주체, 성매매 여성, 전후 소설, 여성의 성욕, 위험 여성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양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445)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수. ejung2@kyungnam.ac.kr

I. 서론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6·25전쟁)은 전후 한국인의 원체험이자 현대 한국사회의 역사적 발원점이었다. 전후 한국인의 가치의식과 무의식적 욕망,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모순 등은 한국전쟁 체험과 무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전쟁 체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한국전쟁은 정신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면에 걸쳐 근본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이 전쟁 체험이 근대성과 맺는 관계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것이었다. 한국전쟁은 현대화된 무기의 등장과 그로 인한 대량살육(폭력의 무차별성), 양대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체제로 제도화된 좌우익의 이데올로기적 충돌(논리적 범주의 허구성)로서 특징 지워진다. 이런 점에서 한국전쟁은 근대적 패러다임의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질서의 갑작스러운 파열로서 폭로되는 낯설고 공포스러운 현실, 즉 가장 잔혹한 형태로 드러난 문화적 폭력으로서의 전쟁과 전후의 폐허 속에 내던져진 한국인은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해체 위기에 직면한다. 그것은 근대성에 대한 환멸과 불신, 분노와 좌절, 절망 등의 정서적 반응을 수반한다.

이러한 전후의 현상 이면에는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상의 재편화라는 역동적인 과정이 작용하고 있다. 전쟁으로 입은 정신적 외상은 치유 혹은 극복되지 않은 채로 내면화되는 반면에 외면적으로는 ‘재건’이란 명분으로 근대화의 과정이 가속화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전쟁으로 노출된 근대적 패러다임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극복 전망의 모색 없이 마치 봉합하듯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전후 한국 근대화 과정에 많은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이 가장 극명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소설에 나타난 성담론에도 근대화에 대한 이중적인 성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쟁체험의 성별 차이를 통한 왜곡의 양상과 함께 성담론을 구성하는 작가의 구성화 방식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전후 소설의 성담론은 근대적 주체의 젠더이데올로기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겠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주목한 논의이다. 전후 소설에서 보여주는 성담론을 중심으로 남성작가와 여성작가의 작품들을 나누어 각각의 작품에서 형상화된 여성인물

의 ‘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전후시기¹ 젠더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먼저 전후 시기 한국적 특수 사항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근대적 주체의 의미를 고찰하고, 근대적 주체와 성담론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특히 이러한 관련성은 이후에 다루게 될 작품 분석에도 유용하게 작용될 것이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 중 성담론 방식의 주요 대상이 되는 여성은 성매매 여성과 자신의 성욕을 표출하는 여성이다. 이들 여성은 근대적 주체에 의해 ‘위험 여성’으로 분류되어 왔으며(김은하, 2006: 181)², 전후 한국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존재로 인지되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을 다루는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의 태도 등에 나타나는 젠더이데올로기의 위계화와 이중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위계화를 통해 근대적 주체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근대적 주체와 성담론의 관계 고찰

리타 펠스키(Rita Felski)는 《근대성과 페미니즘》(1995)에서 페미니즘의 렌즈를 통해 근대를 재해석함으로써 근대성과 여성성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때 여성의 형상과 여성적인 것에 대한 관념은 근대에 대한 양가적 가치와 감정을 드러내는 핵심영역으로 파악된다. 리타 펠스키의 논의는 근대성 담론에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의 재현의 의미를 분석해서, 근대인식 속에 나타난 근대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하고 모순적인 갈래의 내적 통합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펠스키는 남성 젠더에 의해 구축된 근대성에 대한 서사 논리가 여성을 근대 논리의 바깥에 존재하는 비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1. 여기에서 시대 개념으로서의 ‘전후’는 사회의 제반 현상들이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력 속에 있는 역사적 시기로서의 과도기를 가리킨다. 이 시기는 일반사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나 하나의 특수한 시대 단위로 파악될 수 있다. 그것은 전대와와의 관계에서는 변화와 단절로서, 후대와와의 관계에서는 지양과 극복의 대상으로서, 또한 당대의 내적 동질성으로서의 폐허와 재건으로서의 시대적 징표를 갖기 때문이다.

2. 물론 전후 시기 위험 여성 군에 속하는 여성으로는 아프레걸이라는 이름하에 성매매 여성, 미망인, 양공주, 여대생, 자유부인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공공연한 향수적 욕망의 대상으로 의미화된다. 소외되지 않고 파편화되지 않은 정체성의 표상으로서의 여성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동경은 근대성의 본질을 드러내는 문화적 재현의 역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티프였다. 이들 담론 속에서 여성은 진정한 기원으로, 사회적 상징적 매개의 구속에 훼손되지 않는 신화적 지시대상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바로 근대 자체의 중심에 존재하는 무시간적이고 비사회적인 것의 상징으로 되풀이 되어 언급되고 있다. 이런 전통 안에서 향수와 여성적인 것은 신화적인 충만함의 표상 속에서 함께 나타나며 그 표상의 반대편에는 자기 분열과 실존적 상실로 규정되는 남성적 발전에 대한 지배적 서사가 자리 잡는다. 다시 말해서 향수는 시대착오적인 혹은 주변적인 상태를 집약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의 자기 구속성 속에서 되풀이 되는 주도적 주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때 구원적인 어머니의 육체는 비역사적인 타자, 그리고 근대적 정체성에 대립적으로 규정되는 역사의 타자를 구성한다(Rita Felski, 1995, 73).

위와 같이 근대 이후 여성에 대한 신화는 근대에 대한 남성들의 실존적 자괴감으로부터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은 근대라는 비인간적인 시대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함의 담지자로, 근대적 남성의 자기 향수의 대상으로 담론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개념 설정에서부터 성담론에서 보여주는 여성성에 대한 왜곡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대적 주체에 의한 여성의 대상화는 이미 남성 주체의 자기 향수에서 시작되었다는 측면은 여성의 성을 본질적인 부분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적 상황에서 전후시대의 근대적 남성 주체에 의해서 더욱 확연히 나타나는 부분이다. 전후시기 근대인식의 일반적 방법은 물질=근대=남성, 정신=전통=여성이라는 일련의 이분법적 계열화를 통해서 구축되었다. 따라서 전후시기 여성성은 다분히 젠더화된 방식으로 창출된 전통론을 둘러싸고 범주화되는 양상을 보인다(이명순, 2010: 34). 이러한 범주화에는 가부장적 질서의 수호자인 현모양처와 그것의 위반자인 위험 여성으로 이분화하여 각각 긍정성과 부정성의 이미지로 표상된다.

이들 위험 여성들의 담론에서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담론은 남성작가에 의해 파악되어진 여성인물에 대한 경우와 여성작가에 의해 파악된 여성인물에 대한 담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³ 이 경우

3. 이것은 성담론의 분석을 통해 근대적 주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하나의 작업이 될 것이며, 기존의 논의에서 여

남성 작가에 의한 작품의 경우, 근대적 주체로서의 성격과 함께 여성 인물에 대한 ‘향수성’의 의미와 타자화된 여성성의 의미가 드러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성 작가의 작품의 경우 이러한 부분과 함께 근대의 경험과 담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내부에서 일게 되는 모순과 갈등, 굴절이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방식과 거기에서 기인하는 독특한 측면이 동시에 나타난다 (Rita Felski, 1995/1998: 9).

정리하자면, 전후 시기 근대적 주체가 가진 근대화 인식은 ‘한국적 근대’를 욕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여성에게 적용되는 전통의 원리를 전근대적 요소인 가부장적 질서를 근대의 이름으로 전유함으로써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고에서 주로 다루게 될 ‘위험 여성’이 근대적 주체의 시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배제되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

Ⅲ. 남성 작가에 의한 성담론 방식

성은 금기체제로 억압되어 왔기 때문에 비록 성의 드러냄이 지극히 개인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해도 금기의 파탈로 이어질 성적 표현은 곧 사회의 가치 체계에 대한 강한 거부 의 몸짓이 된다. 따라서 전후의 작가들이 거의 미자각적으로 성의 파탈을 소설의 소재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적 담론과의 상호 대화적 장에서는 하나의 뚜렷한 사회적 지표로 상징될 수 있다(박훈하, 1996: 155).

전후 시기 많은 작가들에 의해 배태된 성담론은 근대적 주체의 성격을 여러 각도에서 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성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로 서기원, 손창섭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 남성 작가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성담론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여성의 부류를 성담론 형성의 측면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고찰한다.

본고의 두 가지 방식의 분류는 전후시기 ‘위험 여성’으로 호명되던 여성⁴이 담론으

성 작가에 의한 성담론의 분석에서 일부 페미니즘 이론의 환원론적인 논법에 따라 ‘여성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참미에 기초해서 남성의 텍스트보다 여성의 텍스트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는 식의 논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로 형성될 때의 특성을 종합한 것이다. 다양한 직업과 의미를 드러내는 여성들이 담론에서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고려한다면, 본고의 분류와 같이 ‘성매매’와 ‘성욕’으로 대별될 수 있다고 본다.

3.1. 성매매 여성을 통한 성담론

여성 인물의 삶에 초점을 둔 전후시기 소설의 큰 흐름 중의 하나가 전쟁으로 전락하거나 시련을 겪는 여성을 다룬 작품들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전시소설에 나타난 ‘여인의 전략’ 모티프인 성매매에 대한 논의의 경우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일차적인 것이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문제는 성도덕의 과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조남현, 1993: 29)는 부정적인 견해가 일반적이다. 물론 여성 시련의 전경화가 많은 이유는 전쟁의 본성이 원칙적으로 여성의 자궁에 대한 난행적인 폭력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이재선 1991: 281) 분석도 존재하며, 전쟁이라는 파괴 담론 하에서 여성들은 돈이나 폭력에 의해 성적 도구로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문화적 여성성을 거세하는 단계에 머무르도록 했다는 평가(송경란, 2000: 8)도 있다. 어쨌든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남성주체의 태도는 여성을 얼마나 사물화하고 대상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성을 매매하는 여성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성담론을 형성하는 작품으로 손창섭의 <유실몽>(1956), <미해결의 장>(1955), 서기원의 <암사지도>(1956), <이 성숙한 밤의 포옹>(1961)과 같은 작품이 있다.

누이는 저녁마다 화장을 하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이는 술집 작부였다. 그러한 직업에 누이는 수재적이었다. 그 수재의 힘으로 몇 식구가 살아가고 있었다. (중략) 언제나 이야기가 남부 문제에 걸치게 되면, 누이는 놀람도록 다변해지고 대답해지는 것이었다. 누이는 처녀시절부터 그랬다. 여자보다 남자친구가 더 많은 편이었다. 자연 여러 가지 불미한 풍문을 퍼뜨리고 다녔다(<유실몽>, 178-179).⁵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매매 여성, 양공주, 미망인, 자유부인, 여대생 등의 ‘아프레겔’로 호명되던 여성을 의미한다.

5. 손창섭(1995), <유실몽>, 『한국소설문학대계30』, 동아출판사, 178-179.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작품명과 페이지만 명시한다.

위와 같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누이의 매춘 행위가 누이의 본래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통해 매춘 행위의 희생적 측면이나 심각성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 주체에 의해 제시되는 ‘성매매’ 담론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특성을 간과한 상태에서 단지 생계의 수단으로 여성의 ‘성’을 타자화한다고 할 수 있다.⁶

<유실몽>에서와 같이 남성 주체가 자신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성욕’의 인물로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인물이 ‘성매매’ 여성일 때 이러한 여성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경향은 송경란(2000), 송경빈(2003), 김미영(2011) 등 기존의 논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기존의 논의에서 ‘현모양처형’으로 평가받는 ‘구원의 여성’ 유형 인물에서까지도 이러한 시각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손창섭의 <미해결의 장>에 등장하는 ‘성’을 매매하는 여성은 남성 주체인 ‘나’에게 구원의 여성으로 형상화되는 인물인 광순이다.⁷

광순에게는 확실히 어떠한 매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 매력인지를 나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광순을 생각하면 그 얼굴에 넘치는 미소가 먼저 보이는 것이다. 광순이라면 덮어놓고 웃는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다(<미해결의 장>, 138).⁸

이렇게 광순은 남성 주체 ‘나(지상)’에 의해 이상적인 형태의 여성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광순을 대하는 가족인 문선생의 입을 빌어 ‘광순’의 매춘 행위는 가장 치욕적인 집안의 비밀⁹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 손창섭의 <유실몽>에서 보이는 이런 특징은 송경빈(2003), 김미영(2011) 등 기존의 논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기에 자세한 작품 분석은 생략한다.

7. 손창섭의 소설에는 여성 인물들이 다채롭게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독특한 것은 남성 인물이 바라보는 여성 인물은 여성을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상화되어 있거나,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하거나,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간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여성 인물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구원의 여성이라는 의미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언급이다. (김미영(2011), 앞의 논문, 40)

8. 손창섭(1995), <미해결의 장>, 『한국소설문학대계30』, 동아출판사, 138.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작품명과 페이지만 명시한다.

9. “이것 봐. 지상이.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고민했네. 여동생이 인육시장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두, 낫을 들 수 없는 일인데, 진실하고 성실하게만 살려는 동지들이 알고 있다면 대체 날 뭘로 보겠나?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죄인은 없을거야!”(<미해결의 장>, 146) 특히 이러한 인식은 문선생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당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문선생과 달리 매춘 행위에 대해 ‘나’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자신의 무기력과 자신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심한 욕망¹⁰을 깨고 현실적인 삶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내가 선옥이었다면 정말 남의 첩이 되어서든, 양갈보질을 해서든 이종형의 마약 값을 당하고, 그 집 살림을 도와주었을걸 하고 후회했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선옥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내가 여자였더라면 하는 생각을 취해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광순을 따라 그 오피스에 나가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옥은 다행히 여자가 아니냐(<미해결의 장>, 144)

이렇게 남성 주체인 ‘나’는 이종사촌 선옥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유학의 꿈을 버리지 못해 ‘나’의 집에서 기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여동생 지숙과 선옥이 갖는 공부에의 열망을 부정적 시각에서 받아들인다는 것과 동시에 여자니까 매춘을 해서라도 집안 살림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송경빈, 2003: 251). 이러한 사고는 여성의 성매매 행위 자체에 아무런 심각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런 갈등 없이 여성의 성매매 행위를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여성의 ‘성’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문선생이 가진 성매매 행위에 대한 ‘비참함’이나 ‘부끄러움’의 감정보다 한층 더한 왜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주체가 표상하는 여성의 긍정성은 그 어떤 근대적 행위 표출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전근대로의 향수를 표상하고 있는 ‘현모양처’의 이미지만을 간직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은 자신의 ‘꿈’을 추구할 가치도 없는 인물이며, 여성이 자신의 성을 파는 행위에 그 어떤 결정권도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매춘 행위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족의 경우, 성을 파는 여성이 행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남성주체에 의해 이미 ‘배타적 여성’으로 인지된 경우는 그들의 희생에 대한 가치보다는 ‘향수적 이미지’의 보호해야할 여성을 훼손했다는 의미를 더

10. ‘나(지상)’의 가족들은 하루를 연명하기도 힘든 현실에서 오로지 미국 유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허무맹랑한 믿음을 하나로 삶을 버려 나간다. 나는 이러한 가족들을 한심해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의견은 언제나 가족들에게 무시될 뿐이다.

큰 가치로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근대적 주체에 의해 제기된 가장 왜곡된 미의 여성성 파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왜곡은 나의 이상적 여성인 광순이 나에게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는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집안의 생계를 위해 매춘을 하는 광순이 나를 위로할 아무런 이유도, 또 위로의 현실적 기호인 ‘위자료’를 제공할 아무런 까닭도 없다.

“나두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광순이를 찾아오는 무슨 뚜렷한 목적 말입니다.”
광순은 내게로 얼굴을 돌리었다. 그저 언제나 다름없는 웃는 얼굴이다. “오빠가 한번은 날 더러 지상이하구 연애하느냐구 합디다. 지상이를 사랑하느냐 말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했소?” “버일써 연애가 끝났다고 했죠. 그래서 지상이는 나한테 위자료를 받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미해결의 장>, 148)

<미해결의 장>에서 남성주체 ‘나’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체인 ‘나’가 하는 유일한 행위는 집을 나서는 광순에게 향하는 정도이며, 이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 자신도 알고 있다. 이러한 나의 무의미한 외출에 대한 의미 부여까지를 나는 광순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광순이 제시한 ‘위자료’의 의미는 나의 무의미한 외출에 대한 ‘의미부여’의 역할, 즉 해결책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체인 ‘나’의 여성성에 대한 왜곡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내가 대문간을 나서려니까 거기에 젊은 사내가 서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정신없이 지 켜었다. “자, 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광순에게 뭐든 자신 있게 요구하십시오. 나두 이렇게 삼백 환의 위자료를 받아 가지구 갑니다.” 나는 참말 별 수 없는 인간인 것이다. 나는 도무지 무슨 해결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인지도 모르는 것이다(<미해결의 장>, 149).

자신에 대한 비하와 함께 제기된 광순에 대한 모욕 행위(뭐든 자신 있게 요구하라는)는 남성 주체 ‘나’가 여성인물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을 더욱 사물화 하고 타자화 하는 방식에 더해 다시 한 번 여성의 훼손된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나’가 광순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만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적 발언의 중심에는 자신이 이상적인 여성으로 생각하는 있는 광순의 매춘 행위는 광순이 견뎌내는 희생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밝은 얼굴로 웃음을 주는 것과 같이 스스로 즐겁게 하는 하나의 직업¹¹이며, 광순은 어떤 남자에게나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 주체가 가진 의식의 중심에는 여성에 대한 이중의 왜곡된 시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성매매’ 행위 자체는 단순한 직업이며 무기력한 자신의 외출보다도 덜 심각한 것이라는 점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점은 학교보다는 매춘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점에서도 역시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현모양처’가 아닌 여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적 존재이며, 이러한 여성이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상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주체의 시각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광순은 어떤 남자에게나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을 주는 여성이라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드러내는 것이다. 즉 광순의 성격이 본래 그런 것이라는 설정을 함으로써 매춘 여성의 ‘매춘 행위’는 그녀의 본래적인 성격과 부합되는 것이라는 점을 통해 여성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특징은 서기원의 <이 성숙한 밤의 포옹>과 같은 작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 쓰디쓴 침묵 속에서 나는 차츰 그녀에 대한 증오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창녀’의 위치에서 탈출하여 ‘인간’이 되려고, 어렵도 없는 수작이다. (중략) “어때, 나하고 놀지 않겠어?” “돈 주면 될 것 아니야” “여기서는 갈보가 아니야” “그런 우순 소리가 어딴어?”(이 성숙한 밤의 포옹>, 130)¹²

살인과 탈영의 죄책감을 가진 ‘나’는 창녀 진숙에 대해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뿌리 깊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창녀 진숙이 행하고자 하는 ‘자살’ 시도 역시 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갈보’에게는 가당치 않은 행위로 여긴다. 이것은

11. 이 점은 ‘나(지상)’가 광순에게 선육을 데려가서 이야기한 “선육에겐 무엇보다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해 날마다 울며 지냈습니다. 직업이란 청운의 뜻보다도 소중한 모양입니다”라는 언술에서 보여주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12. 서기원(1995), <이 성숙한 밤의 포옹>, 『한국소설문학대계35』, 동아출판사, 130.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작품명과 페이지만 명시한다.

남성 주체가 가지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가장 속악한 의식으로, 성매매 여성을 인간이 아닌 완전히 물화된 사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손창섭, 서기원¹³과 같은 전후 남성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평가에서 이들이 본래 부정적인 의미로 다루었던 여성 뿐 아니라 구원의 이미지로 다루고 있는 여성에게조차 ‘성매매’ 행위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생계를 위해 당연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 근대적 주체가 가진 젠더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속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에는 전후 남성 주체들의 무기력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 역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여성의 ‘성욕’을 통한 성담론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내는 행위는 정체성의 근본적인 지표이자 자아 추구의 핵심으로 등장했다는 견해와 함께 이러한 ‘성욕’의 표출이 서구 근대 사회에서의 성담론의 형성에도 관련된다(Rita Felski, 1995/1998: 271)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 주체에 의해 형성되는 성담론에 있어 가장 주요한 문제는 이들 여성 인물이 드러내는 성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후시기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성욕’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남성 주체에 의해 형성된 젠더이데올로기의 실체까지 고찰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의 성욕을 작품의 전면에 다룬 것으로 손창섭의 <생활적>(1954), <잉여인간>(1958), <유실몽>(1956)과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그 첫날밤 일을 생각할 때 동주는 지금도 온몸에 오한을 느끼는 것이었다. 퇴폐적이랄 수밖에 없는 춘자의 흥분한 언동에서가 아니다. 도리어 반대로 동주는 그날 밤의 자기 자신에게 놀랐기 때문이다. (중략) 춘자의 기괴한 이야기와 몸가짐에,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쩡그러지도록 동주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날 밤 동주는 그냥 수컷이었을 뿐이었다. 그 뒤에도 춘자는 거의 밤마다 동주를 가만 두지 않았다. 타오르는

13. <이 성숙한 밤의 포옹> 뿐 아니라 <암사지도>의 경우에도 ‘윤주’에 대한 남성 인물들의 태도에서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하지만 윤주의 경우 성매매 여성의 범주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 논의를 생략한다.

듯한 젊음을 감당하지 못해 야위어 가는 동주의 육체에 매달려 내내 양탈이었다. 그러한 춘자가 마침내 동주는 징그럽기까지 했던 것이다(<생활적>, 76).¹⁴

이렇게 남성 주체는 초점화된 여성 인물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내는 행위 자체를 ‘퇴폐적’이고 ‘징그러운’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파악과 함께 여성 인물의 이미지는 타락한 이미지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주체인 ‘동주’는 세상사에 격리되어 있는 인물로 일본인 중학 동창의 여동생인 ‘춘자’에게 삶을 의탁하고 있다. 실제로 동주를 부양하는 춘자는 여러 남자를 거친 과거가 있으며, 전남편들과의 괴기한 부부생활에 대해서 동주에게 거리낌 없이 말한다. 즉 이러한 춘자의 언술을 통해 남성 주체인 동주는 그녀가 가진 ‘성욕’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범위를 벗어나는 퇴폐적이며 동물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춘자’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자신의 무기력한 생활은 ‘정신’을 가진 인간의 생활이 아니라 동물적인 수컷으로서의 생활이며 ‘춘자’가 원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동물적인 생존만이 존재하는 삶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춘자의 특징은 이후 역시 동물적인 수컷의 본능만을 가진 부정적 인물인 봉수와 춘자의 동업을 위한 결합¹⁵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의탁해 온 ‘춘자’라는 여성 인물에 대해 단지 성적 욕구만이 존재하며, 성욕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남성이면 누구라도 결합할 수 있는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욕구 자체가 ‘생활’이며 자신은 이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설정과 함께 이러한 ‘생활’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춘자’라는 여성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욕이 존재하며, 여성의 성욕을 가장 부정적인 형태로 왜곡하고자 하는 작가의 젠더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손창섭의 대표작인 <잉여인간> 역시 자신의 성욕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인물인 ‘봉우처’가 등장한다. 그녀는 <잉여인간>의 다른 여성 인물들¹⁶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14. 손창섭(1995), <생활적>, 『한국소설문학대계30』, 동아출판사, 76.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작품명과 페이지만 명시한다.

15. <생활적>이라는 제목의 의미답게 서사 공간에서 가장 ‘생활적’인 인물인 봉수와 춘자의 결합은 가장 동물적인 결합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16. 지순한 사랑을 보이는 만기처, 만기 처제와 봉우의 이상적 여성인 인숙 등을 의미한다.

이미지로 설정 되어 있는데, 먼저 그녀는 근대성의 가장 대표적 속성인 ‘돈’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성욕’을 과감히 드러내는 인물이라는 점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른 여성 인물들과 분리된다.

한 달이면 절반은 사업을 합네, 혹은 친절에 가 있습네 하고 집을 비우기가 일쑤인 봉우 아내는 여러 가지 불미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었다. 그 여자는 본시 평판이 좋지 못하였다. 봉우와 결혼한 지 여덟 달 만에 첫아이가 봉우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둘째 아이 역시 누구의 찌지알 게 뭐냐고 봉우 자신 신용을 하려 들지 않았다(<잉여인간>, 335).¹⁷

이렇게 ‘봉우처’는 존재 설정 자체부터 부정적인 시각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남성 주체인 만기에게 과감히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다가가는데, 특히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만기라는 인물을 얻기 위해 ‘병원’을 흥정의 대상으로 쓸 만큼 속악한 인물로 제시된다. 즉 만기에 의해 제시되는 봉우처가 가진 성욕은 사물화된 사회의 왜곡된 욕망(김수영, 2011: 30)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봉우처’와 대비되는 여성 인물들¹⁸을 <잉여인간>의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봉우처’의 욕망은 더욱 속화되고 왜곡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다.¹⁹

이렇게 여성 인물의 성욕 제시에 대한 남성 주체의 왜곡된 평가는 바로 여성은 남성의 욕망 충족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또한 남성 주체의 젠더이데올로기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잉여인간>에서 보여주는 여성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근대적 주체의 ‘여성성’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어떠한 수준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한다. 주체 인물인 만기에 의해 가장 지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인물은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며 만기에게 경제적 부담만을 배가하는 인물인 ‘만기처’이다. 만기처는 그야말로 ‘현모양처형’ 인물이며, 동생이 가진 남편에 대한 애정까지도 수용할 정도의 인물이다. 간호사 인숙이나

17. 손창섭(1995), <잉여인간>, 『한국소설문학대계30』, 동아출판사, 335.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작품명과 페이지만 명시한다.

18. 만기처, 만기 처제와 봉우의 이상적 여성인 인숙 등.

19. 하지만 봉우처가 제시하는 자신의 성욕을 표출하는 방식이나 재화를 매개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하고자하는 방식은 당시 뿐 아니라 현재까지 남성들에 의해 자행되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에 대한 평가는 여성 인물에 대한 것보다는 훨씬 정도가 약하게 제시되거나 심지어는 쉽게 통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치체에 대한 근대적 주체인 ‘만기’의 평가가 덜 긍정적인 것은 ‘만기처’가 조강지처라는 입장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인숙이나 처제가 아내에 비해 좀 더 근대적 인물²⁰이라는 측면도 강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전후 소설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과 비인간적인 비정함, 성의 문란과 가치관의 혼란 등, 전후의 분단 구조와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들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투영된 특징이 있다(한만수, 1995: 202). 이러한 특징 중 성의 문란과 가치관의 혼란을 형성하는 많은 부분이 남성 작가들에 의해 제시될 때²¹ 여성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매매의 여성과 성욕을 드러내는 여성들을 통해 형성되는 성담론은 여성의 노동 의미에 대한 무가치한 판단이나 여성의 욕망에 대한 무시라는 측면에 앞서 여성 자체를 타자화하고 물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담론의 제시를 통해 전후세대 남성 작가들의 젠더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IV. 여성 작가에 의한 성담론 방식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일반적인 시선에 의해 성녀와 창녀 중 하나에 속할 것을 강요받는다. 남성적 시선은 여성 몸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안전한 여성’과 ‘위험한 여성’이라는 이분법을 재생산해 낸다(이명귀, 2005: 118).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자에 속하는 여성들에 대한 가혹한 평가를 통해 그들의 젠더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남성 작가들에 의해 형성되어 온 여성의 몸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을 끊임없이 교란시키고 허무는 과정이 바로 여성 작가에 의해 여성을 말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주로 자신의 ‘성’을 매매하는 여성주체의 목소리에 의한 성담론의 방식이나 자신의 성욕을 드러내는 여성 주체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0. 인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돈’을 소유한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처제 역시 ‘공부’를 지속하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근대적 속성이 제시되는 인물이다.

21. 이는 대부분 남성 작가의 작품에 초점자 인물로 등장하는 남성 주체에 의해 형성화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의 논의는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의 성담론 방식의 차이를 통해 전후 시기 근대적 주체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논의는 여성 작가에 의한 성담론에서 여성 주체의 ‘자아 정체성’의 표출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 표출의 한계까지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의 파악을 통해 전후시기 젠더이데올로기를 더욱 정확하게 고찰할 수 있다고 본다.

4.1. 성매매 여성을 통한 성담론

여성 작가에 의해 형상화된 작품에서 여성 주체들은 전쟁을 기점으로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조건이 급격히 달라지게 된다. 특히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사상의 변화와 근대정신의 유입은 정조관념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성윤리 붕괴를 촉진한다. 또한 여성 주체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론적 위기를 경험하고, 자기정체성과 사회적인 위상을 찾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을 통해 여성 주체는 사회 문화적으로 주변화 된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통해 자기의 성을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인식하게 된다(송경란, 2000: 74). 이것이 여성 주체의 자기 정체성과 자아실현의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을 매매하는 여성 주체에 의해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강신재의 <해결책>(1956), <해방촌 가는 길>(1957), <관용>(1959)과 한말숙의 <신화의 단애>(1957)와 같은 작품이 있다.

먼저 강신재의 <해방촌 가는 길>의 기에는 자신의 안락보다는 동생과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미군 부대의 타이피스트로 들어갔다가 양공주의 삶으로 들어선 여자다. 그녀는 부양가족의 생활을 위해 ‘조오’를 어느 정도 이용할 목적으로 그와 관계를 가지면서 그의 순수함에 이끌리게 된다. 그러나 ‘조오’가 본국으로 송환되어 떠나버리자 그가 준 돈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기에는 두 달이나 대구에 머물러 있었다. 어두운, 산란한, 창문에 빗줄기가 흐르는 듯한 날과 날이 지나갔다. 기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혹은 종일토록 엎드려서 울음과 노여움과 그리고 바람같이 가슴을 휩쓰는 허무감과 싸우고 있었다. 조오는 기

애의 심장을 너무나 깊이 깨물어 버린 것이었다(<해방촌 가는 길>, 48).²²

위와 같이 <해방촌 가는 길>의 여성 주체는 ‘양공주’라는 신분에서 오는 상처 이전에 몇 번의 심한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 타이피스트로 생계를 이어갈 때, 기애는 ‘제비’라는 별명으로 놀림이 되었을 정도로 강직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런 성격의 기애가 자신을 무너뜨리며 미군 ‘조오’와 관계를 가진 것은 어머니와 동생의 학업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애가 양공주의 생활을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상처였다면, 자신과 조오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라고 믿고 있었지만 자신을 버리고 본국으로 간 조오에게서 받은 상처가 두 번째 상처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조오가 준 돈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이나, 자신이 보내준 생계비로 어느 정도 살림이 나아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간 집에서 목격하게 된 어머니 장씨의 초라한 몰골이나 기애의 눈치만을 살피는 굴욕적인 모습에서 또 다른 형태의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단정하지 못한 기애의 차림새를 남에게 보이기 꺼려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기애는 자신의 존재를 거부당하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한 장씨에게 기애는 무엇인지 비굴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묘하게 돌아가는 일이었다. 장씨 자신 돈은 반갑고 귀하면서 돈이 되는 그 물건에는 무언지 몇몇지 못한 것을 뉘우치듯이 딸에 대하여도 기특하고 고마운 반면에는 낙담이 되고 꺼려하는 무엇이 없지 않았다. 장씨의 이런 기분은 또 그냥 기애에게 반영되고 그러니까 장씨에게서 느끼는 무엇인지 비굴한 그 느낌은 곧 기애가 기애 스스로에게 느끼는 비굴감이기도 하였다. (중략) 기애로 보면 자기의 실패가 끊임없이 그리고 전면적으로 모욕당하고 있는 셈이었다 (<해방촌 가는 길>, 55).

그러나 기애는 어머니 장씨나 주위 인물의 이러한 시선에 대해 양공주로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사람이 사람에게보다는 동물에 가깝도록 궁핍에 인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기’²³ 때문이다.

이러한 기애의 생각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근수를 만났을 때 변모한다. 절망

22. 강신재(1995) <해방촌 가는 길>, 『한국소설문학대계 37』, 48.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작품명과 페이지만 명시한다.

23. <해방촌 가는 길>, 52.

감이 몸에 배어 있는 근수의 사랑을 기애는 거부한다. 자신은 이미 정조를 버린 몸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애의 거절에 절망한 근수가 자살하고 기애는 다시 양공주의 생활로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간 기애의 양공주 생활은 이전에 기애가 가졌던 ‘궁핍에 인종하여 살아가는 부끄러움’ 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당당함이 사라진 상태이며 단순히 그 외에 다른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선택일 뿐이다. 즉 모든 희망을 버린 상태의 소외자의 길(박수미, 2005: 29)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생활이 최우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자신의 직업을 당당하게 밝히던 기애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 장씨로 대표되는 자신을 향한 사회의 ‘거부감’에 당당했던 여성 주체 기애도 자신의 몸을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남성 주체에 의해 타자화 되고 물화된 여성의 몸에 대한 평가와 유사한 형태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대적 남성 주체에 의해 양분화된 여성의 모습 중 ‘현모양처형’의 더럽혀지지 않는 육체만이 진정한 사랑의 자격이 있다는 젠더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양공주 기애는 이야기가 진행됨에 있어 반복적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당한 서술의 결말에는 자책과 갈등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성 작가에 의해 성격화된 여성 주체 역시 이분화된 젠더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양공주를 특이하게 미화시킨 작품인 <해결책>에서도 역시 추출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해결책>에는 전통적인 여성 인물인 덕순과 양공주인 미라가 등장한다.

김미라를 볼 때마다 덕순이의 머리에는 “양공주”라는 말이 저절로 떠올랐다. 김미라가 확실이 그것인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었으나 여하간 김미라는 양공주다웠다. 공주다음게 어여쁘고 사치하고 그리고 편안해 보였다. 그리고 매춘부다음게 무언지 정상치 않고 세우차 보였다. 그것은 아이를 낳고 남편을 섬기고 하는 자기의 그것과는 또 하나 판연히 다른 여인의 삶이었다. 그리고 현재 이 지경에 이른 자기의 방식만이 옳았다고는 입이 열이라도 할 수 없었다(<해결책>, 294-295).²⁴

덕순이는 김미라의 생태에 관심을 가지고 미라가 ‘언제나 싱싱한 낮빛으로 즐거운 듯이 살고 있다’고 보고 미라의 생활 태도에 ‘용기’를 얻어 남편을 찾아가는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남편과 그의 첩(첩의 엄마까지 포함)에게서 모욕과 구타만을 당하고 돌아오게 된다. 남편의 폭행 후 덕순은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미라에게 의논하며 ‘해결책’을 구하게 된다. 미라는 자신의 인생 경험²⁵까지 이야기하며 덕순에게 경제적 보상을 받고 남편과 헤어지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미라의 이러한 해결책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사자인 덕순이 선택한 해결책은 아들을 출산하면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르니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해결책’이다.

결국 덕순에 의해 긍정적인 인물로 제시된 미라의 해결책을 덕순이 ‘이해 밖의 일’이라고 여기며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생활하던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여성 주체 덕순이 가진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호의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며 일시적인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역시 앞서 <해방촌 가는 길>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호감 정도가 당대의 젠더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말숙의 <신화의 단애>의 여성 주체인 진영은 X대학 미술학도이면서 생계를 위해 댄서로서 일한다. 그리고 댄서라는 직업 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매춘까지 하는 인물이다. 진영은 자신의 성욕을 그대로 표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매춘을 통해 생계를 해결한다는 사실에 전혀 거부감이 없다.

진영은 위스키를 더블로 해서 마셨다. 이내 몸이 상쾌해진다. 폭신한 베드에 엎드려본다. 기분이 여간 좋지 않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농락해 보고 싶을 만치 삶에 대한 자신이 강력히 솟구친다. 무서울 것도 거릴 것도 없다. 오로지 그려야 한다는 의욕만이 파아랗게 불타 뿐이다(<신화의 단애>, 35).²⁶

이렇게 진영이 자신의 매춘 행위에 대해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것은 자신의 매춘 행

24. 강신재(1958), <해결책>, 『희화』, 계몽사, 294-295.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페이지만 명시한다.

25. 약혼자가 전사한 줄 알고 결혼을 포기한 뒤 양공주가 되었으나 약혼자가 살아서 돌아오자 ‘울거나 죽어버리지 않고 그냥 동무로 만들어서 생활한다는 자신의 경험’(위의 책, 307)

26. 한말숙(1994), <신화의 단애>, 『신과의 약속』, 일신서적출판사, 35.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작품명과 페이지만 명시한다.

위가 생계의 수단일 뿐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절대적 도구라는 점 때문이다. 즉 자신이 완성할 위대한 그림과 비교할 때 자신이 행하는 매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진영이 자신의 애인인 경일에게 다른 남자의 하숙에서 잤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고, 그러한 구타를 별 저항 없이 맞으며 견딘다는 점에서, 뜻밖의 횡재로 얻게 된 삼십만 환으로 호텔에 머물게 된 진영이 그 곳으로 경일을 부른다는 점에서 진영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표상하는 인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²⁷ 즉 자신의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자신이 의지할 곳은 결국 남성이라는 당대의 젠더이데올로기를 표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 작가에 의해 제시된 근대적 여성 주체의 정체성은 진정한 자아 표출의 방식에서 많은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으며, 결국 남성 주체의 젠더이데올로기를 다른 방향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4.2. 여성의 '성욕'을 통한 성담론

여성들에게 성이라는 것은 금기와도 같은 것이었다. “짐작은”여자라는 사회적 억압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표출할 수 없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한말숙의 <신화의 단애>의 여성 주체 진영은 성을 매매하는 여성일 뿐 아니라 자신의 성욕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자신이 가진 성욕을 그대로 표출한다는 것은 자신의 여성 정체성을 인지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인지를 통해 젠더이데올로기의 극복 혹은 무화를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의 단애>(1957)와 같이 여성 주체가 자신이 가진 성욕을 스스로 표출해 내는 작품으로 강신재의 <향연의 기록>(1955), <제단>(1955) 등의 작품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욕망을 직접적인 자신의 목소리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욕망은 이것을 관찰하는 서술자에 의해 구현되고 있으며, 이들의 행위 또한 이러한 서술자에 의해서 묘사

27. 이 점은 손창섭의 <유실물>의 누이가 자신의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남편에게 매를 맞는 것에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부분과 남편 상근을 떠나 여전히 다른 남자와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되고 있다는 것이다(최수완, 2006: 91).

여성의 성욕을 관찰하는 인물이 친여동생으로 제시되는 <향연의 기록>의 경우 ‘나’는 언니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언니의 모습을 그야말로 기록하는 자세로 전달하고 있다. 즉 ‘나’는 언니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적 매력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언니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최수완, 2006: 135).

“이런 옷두 더러 입구 싶어 졌어” 거울 앞에 서서 뒷모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구 ‘저쪽 동무’ 말야. 시골뜨기니깐 보면 약간 놀랄걸?” 나는 상대한 기운도 마음도 없어 그냥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저쪽 동무’란 양관에 들어 있는 젊은 괴뢰군 장교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중 좀 멀쑥하게 생겼고 키도 컸습니다만 실은 나는 그 얼굴을 자세히 본 일은 없습니다. 그는 언니가 그의 앞을 지나갈 때면 얼굴을 붉히면서 눈을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그것을 재미나다고 하며 그 후에도 더러 다른 옷을 갈아입고는 일부러 정원 구석지에 있는 샘터에 까지 물을 길러 가기도 하였습니다(<향연의 기록>, 114-115).²⁸

전쟁이 나기 직전부터 언니의 남자관계는 약혼자인 김정수와 약혼식을 하러 가는 도중에 박관호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등 ‘나’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이다. 언니의 이러한 애정 행위로 인해 나와 가족들은 언니의 두 남자와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 기괴한 경험을 하게 된다. 결국 피난을 하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된 언니는 자신의 집을 점령한 ‘괴뢰군 장교’에게까지 남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언니의 이런 성격은 ‘나’가 언니의 습성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나는 그 얼굴을 자세히 본 일도 없습니다”와 같이 나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차이에서 언니와 나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리는 작품의 마지막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부엌문 어구에 등을 찰싹 부치고서 거머리처럼 달아 붙어 선 것은 언니였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 마루 앞을 보니까 키 큰 괴뢰군이 권총을 언니 가슴에 겨누고 있질 않겠습니까. 옆집에 타오르는 붉은 불빛에 비치어 그 광경은 무슨 괴로운 악몽의 한 장면 같이 떠올라 있는

28. 강신재(1958), <향연의 기록>, 『회화』, 계몽사, pp.114-115.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작품명과 페이지만 명시한다.

것입니다. 나는 악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고 하였습니다. 그 찰나에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길 가요? 어떻게...” 보통 때보다 더욱 느릿느릿, 땅우에 떨구듯 구울리듯 하는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공포도 섞여 있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고무 뿔 같은 탄력과 교태 비슷한 음향조차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언니는 절대 절명의 궁지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그런 교태를 부린 것일까요. 내가 놀라고 있는 사이에 그 사나이는 언니의 어깨를 왈살스럽게 끌어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흘깃 언니의 흰 이가 보였습니다. 그는 안기면서 눈을 감고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향연의 기록>, 116-117).

다소 긴 인용이지만 작품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서술자로서의 ‘나’와 서술 대상인 ‘언니’와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나’는 언니의 가슴팍에 총을 겨누고 있는 인민군 장교의 모습을 악몽으로 파악하고, ‘악’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고 한다. 즉 가족으로서의 ‘언니’를 파악하고 언니를 염려하는 모습이다. ‘나’의 이러한 태도는 언니의 약혼식이나 이후 행하는 언니의 ‘남성 편력’의 모습에도 그 어떤 논평을 가하지 않고 단지 ‘급할 것 없는 언니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언니의 아름다운 돌보이게 하는 미덕’ 정도로 호의적으로 평가했던 서술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태도는 이후 발생하는 언니의 태도를 통해 심한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언니의 교태가 ‘절대 절명의 궁지에서 목숨을 구하지 위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며’ 실제로는 그의 애정을 얻기 위한 능동적인 유혹까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언니의 본능은 가족애와 모든 인간적인 윤리를 무시한 단지 암컷으로서의 본능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입장 정리와 함께 이후 언니의 행적에 대한 제시는 앞서 언니에게 가졌던 ‘호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언니는 결국 인민군을 따라 북쪽으로 갔다가 남하하던 길에 우연히 만난 전약혼자 김민수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이다.²⁹ 김민수 역시 그 충격으로 실성했다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됨으로써 언니가 가진 여성으로서의 성욕은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말은 결국 근대적 남성 주체에 의해서 제시되던 젠더이데올

29. 이 역시 근대적 남성 주체가 가진 젠더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언니의 남자 중 공식적인 약혼자의 관계에 있는 김민수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은 김민수가 언니의 성욕에 대한 평가와 단죄를 할 자격이 있는 주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로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처음에 ‘호의’를 가지고 이해의 측면에서 제시되던 여성의 성욕을 마지막에 결국 비참한 결말로 마무리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으로 작동하지만 결국 마지막 ‘해결책’은 전통적인 젠더이데올로기를 따르는 방식과 같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제단>의 경우 역시 “순정의 몸속에는 한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는 ‘순정’에 대한 서술자 ‘나’의 평가는 이해와 호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지는 일들은 결국 순정의 욕망이 나와 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었고, 순정은 가장 비윤리적인 인물로 제시된다. 이러한 결말 제시 역시 앞서 살펴본 <향연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여성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극복할 수 없는 젠더이데올로기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의 성욕 표출을 담론화한 여성 작가의 작품의 경우 무엇보다 성욕을 표출하는 여성 인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서술 대상화되는 구조로 인해 여성의 성욕 자체가 긍정적으로 구현될 수 없는 측면이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여성의 자아 정체성은 근대적 남성주체의 젠더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모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근대적 남성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현모양처형’의 향수에서 여성 작가 역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V. 결 론

이상 본고는 전후 소설에서 보여주는 성담론에서 남성작가와 여성작가의 작품들을 나누어 각각의 작품에서 형상화된 여성 인물의 ‘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이러한 성담론을 통해 전후시기 여성인물에 대한 젠더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전후시대의 근대적 남성 주체에 의한 근대인식의 방법은 물질=근대=남성, 정신=

30. 이것은 하층민 여성의 성욕에 관한 작품인 한말숙의 <어떤 죽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최초로 가진 오하사를 향한 근이 엄마의 성적 욕망이 결국 유산을 하며 죽어가는 것으로 끝맺음으로써 ‘성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여성이라는 일련의 이분법적 계열화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전후시기 여성성은 가부장적 질서의 수호자인 현모양처와 그것의 위반자인 위험 여성으로 이분화하여 각각 긍정성과 부정성의 이미지로 표상되었다.

본고는 근대적 주체에 의해 위험 여성들의 담론으로 평가된 성담론에서 남성작가에 의해 파악되어진 여성인물에 대한 경우와 여성작가에 의해 파악된 여성인물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하고자 한 것이다.

남성 작가에 의한 작품의 경우, 근대적 주체로서의 성격과 함께 여성 인물에 대한 ‘향수성’의 의미와 타자화된 여성성의 의미가 드러났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도 보여 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성 작가의 작품의 경우 이러한 부분과 함께 근대의 경험과 담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내부에서 일게 되는 모순과 갈등, 굴절이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방식과 거기에서 기인하는 자체의 모순이 독특하게 드러났다.

본고가 유형화한 성담론 방식은 주요 대상이 되는 여성의 성격에 따라 성매매 여성과 자신의 성욕을 표출하는 여성이며, 본고는 이들 여성을 다루는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의 태도 등에서 젠더이데올로기의 위계화와 이중화를 고찰하였다. 특히 남성 작가에 의해 ‘구원의 여성’ 이미지로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조차 이 인물이 성매매 여성일 때 근대적 남성 주체에 의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 작가에 의해 주체적 인물로 평가 받는 여성 인물의 경우에도 작품의 결말은 부정적으로 끝난다는 점을 통해 근대적 주체의 젠더이데올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강신재(1958). <제단>, <환희의 기록>, <해결책>, <관용>, 『희화』, 계몽사.
- 강신재(1995). <해방촌 가는 길>, 『한국소설문학대계 37』. 동아출판사.
- 서기원(1995). <이 성숙한 밤의 포옹>, <암사지도>, 『한국소설문학대계 35』, 동아출판사.
- 손창섭(1995). <유실몽>, <미해결의 장>, <잉여인간>, <생활적>, 『한국소설문학대계 30』. 동아출판사.
- 한말숙(1994). <신화의 단애>, 『신과의 약속』. 일신서적출판사.
- 곽승숙(2011). “강신재 소설의 여성성 연구”, 『어문논집』, 64집. 민족어문학회, 189-215.

- 김미영(2007). 『한국현대문학의 표상과 인식』. 청운.
- 김수영(2011). “전후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선(2008).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페미니즘연구』, 제8권 제2호. 197-222.
- 김연숙(2003). “양공주가 재현하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페미니즘연구』, 제3호. 한국여성연구소. 121-156.
- 김은하(2003).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1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158-179.
- 김은하(2006). “전후 국가 근대화화 아프레 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16호. 181-207.
- 김정화(2008). “1950년대 강신재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과 근대성의 관련 양상 고찰”.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상곤(2006). “1950-60년대 여성작가 소설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미(2005). “강신재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 연구: 50년대와 60년대 단편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호강(1999). “젠더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과 젠더이데올로기”, 『사회과학연구』, 제7집. 83-109.
- 박훈하(1996). “전후소설의 성담론과 역사의식과의 상관성”, 『부산대학교인문논총』, 49호. 153-164.
- 서은선(1996). “서기원 소설에 나타난 전후 심리 묘사와 실존성의 연구”, 『牛岩斯黎』, 6집. 131-147.
- 서재원(2012). “1950년대 강신재 소설의 여성 정체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집. 277-296.
- 손종업(1994). “손창섭 후기 소설의 여성성”, 『어문논집』, 23호. 중앙어문학회, 171-184.
- 손종업(2001). 『전후의 상징체계』. 이회.
- 송경란(2000). “1950년대 한국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경빈(2003). “손창섭 소설의 여성 인물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46-268.
- 송인화(2006). “강신재 소설의 여성성과 윤리성의 문제”, 『한국문예비평연구』, 19. 133-158.
- 심진경(2006). 『한국문학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 심진경(2008). “전쟁과 섹슈얼리티”, 『현대소설연구』, 39. 56-76.

- 안미영(2008). 『전전세대의 전후인식』. 역락.
- 이경재(2012). “한국전쟁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 표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6집. 459-490.
- 이명귀(2005). “1960년대 여성 소설에 나타난 몸과 근대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명순(2010). “1950년대 한국 여성담론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2003). “1950년대 여성 작가 소설의 여성담론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부순(1995). “한국전후소설연구:전도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선옥·김은하(1997). “여성성 드러내기과 새로운 정체성 탐색의 의미”, 『민족문화사 연구』, 11. 51-75.
- 이재선(1991). “전쟁체험과 50년대 소설”,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81-296.
- 임금복(2000). 『현대 여성소설의 페미니즘 정신사』. 새미.
- 정혜경(2007).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변모 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남현(1993).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 최수완(2006). “강신재 소설의 여성 색슈얼리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만수(1995). “중간층 작가의 창작전담과 분열적 세계관”, 『한국문학연구』, 17. 197-209.
- Felski, Rita(1998). 『근대성과 페미니즘』(김영찬·심진경 역). 거름.

■ Abstract ■

A study on the way of gender discourse of the Korean novels in postwar period
- focused on the gender ideology of modern subjects -

EUN-JUNG KIM**

This study considered the way of gender discourse of the Korean novels in postwar period, dividing those of male writers and female writers. I studied how the ‘sex’ of the female characters are treated in those novels, that is, the way of the gender ideology's operating on the female characters in postwar period.

** KYUNGNAM UNIVERSITY.

The way of gender discourse can be stereotyped, so the main female characters are classified into prostituted women and the women who express sexual desires of themselves. I considered the hierarchy and dualization of gender ideology from the attitudes of male writers and female writers treating these characters. I found out that even the female character being treated as 'woman of redemption' is completely ruled out by the modern male subjects, if she is a prostituted woman. And I confirmed the gender ideology of modern subjects through the fact that the novel of which the female character being evaluated as a subjective figure by female writers also ended tragically.

Key Words: gender discourse, gender ideology, modern subjects, prostituted woman,
novels of postwar period, sexual desire of woman, dangerous woman

■ 논문투고 : 2013년 4월 30일 논문심사 : 2013년 5월 13일~5월 27일 게재확정 : 2013년 6월 5일